"백년가게·백년소공인 찾습니다"

차별화 경영·기술력, 장인정신 보유 소상공인 육성
국민추천제 도입 국민 누구나 대상 후보 추천 가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성공모델 육성을 위해 올해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오랜 기간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선정해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백년가게는 334개, 백년소공인은 100개가 있으며, 이중 백년가게는 광주 11개, 전남 21개, 백년소공인은 광주에 3개가 선정됐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된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의지, 차별성 및 우수성,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백년가게는 다양한 업종과 기업에서 성공모델이 육성될 수 있도록 신청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으로 한정하고 있던 백년가게 신청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수리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서도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에 한정한다.

또 기존 소상인과 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던 신청대상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선정과정에서는 올해부터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국민 누구나 우수한 소상공인을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국민추천을 받은 백년가게의 경우 업력 3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국민추천 백년가게로 선정이 가능하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는 정책자금,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융자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하고, 백년가게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시에는 100% 보증비율, 0.8% 고정 보증료율과 같은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사업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체가 부담하는 10%의 자부담을 면제한다.

또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방송·신문·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통해 업체의 신뢰도·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영노하우 전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전남중기청 백대화 과장은 "우수한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옥 기자

롯데아울렛 수완점 1층 호남지역 아울렛에서 최초로 오픈한 폴바셋 매장. /롯데아울렛 제공

롯데아울렛 수완점, 폴바셋 오픈

롯데아울렛 수완점은 호남지역 아울렛 최초로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인 폴바셋 매장을 오픈했다고 29일 밝혔다.

폴바셋은 2003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호주의 유명 바리스타 이름을 딴 프리미엄 커피 전문점이다.

신규 오픈한 롯데아울렛 광주 수완점 폴바셋 매장은 약 231㎡ 규모로 아이코닉한 육각형의 기둥과 따뜻한 우드 그리고 은은하게 반짝이는 진주 조합의 매장 컨셉으로 구성돼 있다. /박선옥 기자

농협전남지역본부 직원들이 최근 영농철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나주 세지면 멜론 재배농가 농장에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전남농협, 나주서 농촌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 차질 영농철 인력난 지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최근 영농철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나주 세지면 멜론 재배농가 농장에서 지역본부와 농협나주시지부 직원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 돕기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 심화 현상에 조금이나마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이뤄졌다.

이날 멜론 줄기 유인과 시설물 정화작업 등 일손 돕기를 마친 후 자리를 옮겨 나주 산포에 위치한 농협호남권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택배포장 작업도 지원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전남농협과 행정이 코로나19로 인해 휴학이 장기화하면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판로가 막혀 피해를 보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동구매 캠페인이다.

김석기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촌인력 문제와 농산물 소비 부진으로 농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전남농협은 농업농촌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 로또(904회)

당첨번호	2, 6, 8, 26, 43, 45 보너스 11
등 위	당첨금액
1등	2,718,077,813원
2등	39,392,433원
3등	1,550,751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 연금복권(456회)

등위	당첨번호	
1등	5조	249909
	5조	760324
2등	5조	249908
	5조	249910
	5조	760323
	5조	760325
3등	각조	582961
4등	각조	37629
5등	각조	284
6등	각조	94,36
7등	각조	9,0

전남TP, 기계부품가공 산업 저변 확대

내달 29일까지 수출형 지원 기업 모집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는 전남도 기계부품 가공산업 전후방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기업지원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소재센터는 4월 29일까지 24억원을 투입해 기업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기업지원사업은 전남의 기계부품가공 산업의 저변확대와 산업내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

기업지원 주요 내용은 시제품제작지원, 공정개선지원, 특허 및 인증지원, 장비활용지원, 컨설팅 지원, 시험분석지원, 기술지도 및 이전등 기술지원분야와 홍보물제작지원, 국내외판로개척지원, 마케팅지원 등 사업화지원이며 프로그램별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선옥 기자

무안공항 개점 휴업 지속…4월 말 순차재개 기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월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의 개점 휴업 상태가 4월에도 이어진다. 각 항공사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하계 운항 스케줄을 제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4월 운항 일정을 대부분 잡지 않겠다고 했다.

29일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에 따르면 이날부터 하계 운항스케줄이 적용되지만, 실제 국제선과 국내선 전 노선 운항 중단은 당분간 이어진다. 10월까지 적용되는 무안공항 하계 운항 일정은 국제선 8개 노선(다낭·타이페이·세부·방콕·옌지·장자제·상하이·푸둥) 48편, 국내선 1개 노선(제주) 14편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모든 항공사가 운항스케줄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4월 중 '비운항' 신청을 함께했다. 국제선은 동방항공이 4월 26일, 제주항공은 5월 1일에 각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고 국내선은 4월 26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광주공항도 예년 수준인 김포, 제주 2개 노선의 운항 스케줄이 확정됐지만, 승객 감소로 일부 항공사는 하루 2~4편인 횟수를 당분간 줄일 것으로 보인다.